

2022
03

병리협보

Korean Association of Medical Technologists News



www.kamt.or.kr

등록번호 성북 라 00009호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전문신문 윤리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원활한 병리협보 배송을 위해 홈페이지에서 도로명주소·5자리 우편번호로 개인정보 업데이트를 해주세요!

CONTENTS

01 COVER

정기대의원 총회 개최

02 NEWS

정기대의원총회 포상자 명단

09 SPECIAL

유럽수면기사 수험 가이드

12 INTERVIEW

김미나 대한임상미생물 학회 이사장

13 NEWS

의료기사법개정안 등 취지

제470호

병리협보 제작에 도움주신 분들

- We pioneer breakthroughs in healthcare. For everyone. Everywhere. Siemens Healthineers Ltd.
- Global Standard of Reference Lab. 재단법인 씨젠의료재단
- 진단검사 역량의 변혁, 환자케어의 향상 한국벡크만콜터주식회사
- Lighting the way with Diagnostics, 시스멕스코리아(주)
- 감염병 체외진단 퍼스트무버 (주)코젠바이오텍
- 고객에게 든든한 힘이 되는 총일화학
- Be Happy in Life with 봄메디칼

발행인 장인호 / 편집인 김 철

편집위원 김대중, 장성호, 이지혜

기자 최재석

디자인·인쇄 혜성디자인

Tel : 02)469-0577

발행소 (사)대한임상병리사협회

Tel : 02)3291-5435

Fax : 02)3291-5621

'진정한 보건의료 전문가 인정' → 지속가능한 협회 발전 이룩!

10월 제35회 세계임상병리사 총회 및 제60회 대한임상병리사 종합학술대회 성공개최 다짐 총회의장단 선출, 제60차정기대의원총회 열어



격랑의 세월을 헤쳐나와 2022년 협회사의 이정표로 기록될 창립 60주년을 맞은 대한임상병리사협회가 정기대의원총회를 열어 “전문가로 인정받는 임상병리사!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협회!”를 모토로 심초음파검사, 수술 중 신경감시검사 등 유권해석 선점 등 2022년도 새회기 사업계획과 총 51억529만원 규모의 예산을 확정했다.

코로나19 오미크론이 무서운 기세로 확산됨에 따라 부득이 의장단과 중앙회 회장단 등만 제한적으로 대면 참석하고 전체 대의원은 zoom 화상회의 시스템으로 참여한 가운데 2월 26일 오후 2시부터 지형선 의장 주재로 진행된 60차 총회에선 2021년도 사업실적으로 생리기능검사 영역 수호 대응,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추가(채혈/심전도) 반대, 기록부 작성 보존 의무화와 교육과정 중 현장실습 법제화 등 의료기사법 개정 추진, 감염관리실 법제화(기준 세분화) 등이 보고됐다.

앞서 개회식에서 지형선 의장은 인증평가를 수행할 임상병리교육평가원 설립과 함께 업권수호를 위한 다양한 방안

추진에 대해 설명했다.

장인호 협회장은 “오는 10월 제35회 세계임상병리사 총회 및 제60회 대한임상병리사종합학술대회를 통해 한국임상병리사의 위상을 전 세계에 전파하는 전기로 삼는 동시에 60년사 발간과 협회관 재건축을 잘 마무리하겠다”면서 국회 계류 중인 5가지 사안에 대한 의료기사법개정안 통과를 위해 의기충 7개 단체와 공동으로 입법역량을 강화해나가겠다고 앞으로 계획을 설명했다.

시상식에서 장인호 협회장은 3년간의 임기를 마친 지형선 총회의장에게 공로패를 수여했고 한경아 대전시회 학술부회장은 국회의장상을 수상했다.(포상자 2면 참고)

이어진 감사보고에선 정책연구과제 관련 연속성 부족을 개선하고 단기, 중기 협회 발전을 위해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에 연구과제 위탁 등이 권고됐다.

제4호 의안인 총회의장단 선출은 150명 대의원들의 투표(온라인투표시스템 적용)로 실시되었고 총회부의장 경선에서 노경운 후보가 선출되었다.



2021년 각 분야에서 임상병리사들을 위해 헌신한 회원들에 대한 포상이 진행됐다.
‘제60차 정기대의원총회’ 포상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순번	성명	근무처	협회직위
1	강복만	서울중앙혈액원	서울특별시 임상병리사회장
2	조성훈	충북 청주의료원	충청북도 임상병리사회장
3	이도왕	울산대학교병원	울산광역시 임상병리사회장
4	김한규	길의료재단 길병원	인천광역시 임상병리사회장
5	원재희	세브란스병원	임상화학검사학회 부회장

- 자랑스러운 임상병리사상(협회장) : 자문위원 송운홍, (전)을지대학교 교수 박정오
- 최우수지회 표창(협회장) : 부산광역시 임상병리사회
- 우수지회 표창(협회장) : 제주특별자치도 임상병리사회, 경상남도 임상병리사회
- 최우수분과학회 표창(협회장) : 대한임상수혈검사학회
- 우수분과학회 표창(협회장) : 대한임상화학검사학회
- 공로패(협회장) : 중앙회 총회의장 지형선, (전)중앙회 부회장 노경운, (전)서울특별시 임상병리사회회장 이재진
- 특별상(협회장) : 생리검사영역 발전위원회 위원장 김기봉, 인천광역시 임상병리사회 중소병의원이사 서경아
- 감사패(협회장) : 한국로슈진단, 한국백크만쿨터(주)
- 제49회 임상병리사 국가고시 전국수석(협회장) : 김유림(대구보건대학교)
- 직원 근무표창(협회장) : 최현지 주임, 손다정 사원, 강민수 사원

■ 우수회원(협회장)

소속시도	성명	근무처	소속시도	성명	근무처
서울시회	설승환	서울아산병원	경기도회	강유선	GC녹십자의료재단
	최병걸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심장혈관연구소		김영혜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이영남	세브란스병원		성기형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이남호	재단법인 씨젠의료재단		윤옥진	국립암센터
	최용성	신촌연세병원		신민희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이시은	21세기병원	충북도회	서창호	청주 한국병원	
부산시회	정영희	홍인내과의원	충남도회	김은주	서산중앙병원
대구시회	최창수	영남대학교병원	전북도회	유정선	군산 차병원
인천시회	김미희	인천광역시의료원	전남도회	정선임	순천성가롤로병원
광주시회	조준혁	대한결핵협회 광주전남지부	경북도회	서정복	구미차병원
대전시회	조기창	간양대학교의료원	경남도회	김현주	성균관대학교 창원삼성병원
울산시회	김대성	울산대학교병원	제주도회	정해원	제주대학교병원

■ 집행부 근무표창(협회장)

성명	협회 직위	성명	협회 직위
임대진	총무이사	최정수	정무부장
하성일	재무이사	강부석	학술부장
엄동욱	정무이사	이현희	교육부장
이상희	학술이사	임효경	교육부장
황삼노	교육이사	이지혜	공보부장
최병호	중소병의원이사	남기준	정보통신부장
정지은	총무부장	정옥희	중소병의원부장
김지현	총무부장		

2022년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중앙회 사업계획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중앙회는 2022년 임상병리사의 위상을 높이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문가로 인정받는 임상병리사,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협회'로 2022년 사업 목표를 제시했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는 임상병리사들의 전문성을 인정받기위해 크게 4가지 방향으로 사업을 수립했으며, 목표 달성을 위해 각 부서별로 세심하고 면밀하게 다양한 사업을 준비 중에 있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가 추진하고 있는 2021년 사업실적과 2022년 사업계획을 준비했다.

2021년 사업실적

임상병리사 및 협회 위상 강화

생리기능검사 업권 수호를 위한 대응

27대 집행부는 생리기능검사 영역 업권수호 TF팀을 조직해 생리기능검사 각 분야에서 임상병리사의 정확한 업무범위 확립과 인력선정을 위해 지속적인 자료 업데이트 및 적극적인 대응부 대응을 진행 중이다.

임상병리사 권익보호

2021년 12월 전 경기도의사회 회장 이동욱이 페이스북, 네이버 블로그와 같은 SNS를 통해 임상병리사들의 헌신을 훼손하고 폄하하는 글을 올렸고, 장인호 협회장 이하 50여명의 이사진은 이동욱을 상대로 이러한 망언과 행동에 대하여 책임지고 사죄를 촉구하는 규탄대회 및 법적 소송을 진행했다. 현재 이동욱의 맞 고소로 이어진 상황이지만 협회는 굴하지 않고 끝까지 대응하여 7만 2천명의 임상병리사 회원들의 명예회복과 협회의 위상을 제고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학술 및 교육 역량 강화

한국임상병리교육평가원 설립

한국임상병리교육평가원의 설립 목적은 임상병리 교육프로그램이 국내외 보건의로 현장에서 요구되는 임상병리사의 역량을 갖춘 학생을 배출할 수 있도록 성과중심 교육체제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프로그램의 개선을 통해 임상병리 교육의 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유지하는데 있다. 임평원은 2021년 6월 개원식을 가진 후 현재 보건복지부에 재단설립 허가를 위한 업무 진행과 평가원 관련 법안발의에 참여 등 다방면으로 노력 중에 있다. 또한 임평원은 정관 및 제 규정 등을 재 정비함은 물론 위원회 구성과 함께 정책연구과제를 통해 프로그램 관련 내실을 다지고, 2022년 상반기에는 4개대학을 시작으로 시범평가 실시를 계획 중에 있다.

경북대학교 수면다원검사 교육과정/검체채취 교육과정 실시

협회와 경북대학교는 MOU를 통해 수면다원검사 Scoring 교육 및 코로나19 검체채취 교육 등 현장에서 실제업무에 필요한 수준 높은 강의와 실습교육을 실시하여 회원 및 예비 병리사들의 질적 함양은 물론 협회의 위상제고에 큰 역할을 했다.

협회 운영 개선 및 조직 역량 강화

협회 전산 시스템 고도화

협회는 2021년 10월 20일에 보건복지부로부터 "정보시스템 취약점, 홈페이지 취약점, 서버, 네트워크, 사무국 환경" 등에 대해 보안 컨설팅을 받고 다음과 같이 > 단독회선 분리진행 > 서버 백신프로그램 운영확인 > 방화벽 추가구축 > 웹 취약점 자동점검 등 취약점에 대한 보완작업을 실시 했다. 7만 2천여명의 소중한 개인정보와 보수교육 관련된 수많은 교육자료 등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여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협회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회원 단합 및 대외 활동

한철캠페인

협회에서는 코로나 19 발병 이후 한철 감소로 인한 각 기관의 혈액부족의 어려움을 인지한 바, 일선에서 이러한 어려움을 돕기위해 임상병리사 회원들에게 한철사업을 홍보하여 동참하기를 권장했다. 이에 전국의 임상병리사 회원들은 적지 않은 수의 한철을 진행했으며 회원들의 봉사정신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2022년 사업계획

제도적 위상이 향상된 임상병리사, 전문가로 인정받는 임상병리사, 회원과 함께하는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는 임상병리사의 위상을 높이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문가로 인정받는 임상병리사,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협회'로 2022년 사업 목표를 제시했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는 임상병리사들의 전문성을 인정받기위해 크게 4가지 방향으로 사업을 수립했으며, 목표 달성을 위해 각 부서별로 세심하고 면밀하게 다양한 사업을 준비 중에 있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가 추진하고 있는 2022년 사업계획은 제60차 정기대의원총회를 통해 최종 결정되었다.

중앙회소식

IFBLS 본부-중앙회 zoom call

2월 7일(월) IFBLS 본부-중앙회 zoom call 회의가 열렸다. 이 날 회의는 장인호 대회장, 기원진 조직위원장, 김상원 총괄운영위원장, 임대진, 하성일, 김철, 권민석, 이상희, 송기선 분과위원장이 참석했고 학회 등록, 초록 접수 홈페이지 오픈 일정(3월 2일)을 공유했으며 WHO 및 IFBLS측 연자 섭외에 대해서는 WHO 1인, IFBLS 2인이 섭외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AAMLS BOD 화상 회의 진행



2월 11일(금) 제28차 AAMLS 이사회가 화상회의로 열렸다. 이 날 회의는 장인호 협회장, 김상원 행정부회장, 유필상 사업부회장, 김형

락 기획부회장, 송기선 국제이사, 정해용 국제부장이 참석했다. 주요 회의내용은 △연회비 미납부 협회 납부요청 △전자 저널 재발행 위원장 자원 △AAMLS 새로운 웹사이트 운영 회원국 자원 △제7차 AAMLS 총회 주최인 말레이시아측 진행보고서 제출요청이 있었다.

172차 정기이사회 개최

2월 12일(토) 대한임상병리사협회 회의실에서 제172차 정기이사회를 개최했다. 제60차 정기대의원총회에 앞서 열린 정기이사회에서는 그 중 △대의원총회 대의원 선출 △총회 안전 상정 △사무국 직제 개편 △2021년도 감사결과 보고 △2021년도 결산 보고 △2022년도 예산안 보고 외에 7개의 안건이 상정됐다.



중앙회 활동보고서

2022.02.01 ~ 02.28

- ▶ 2월 5일 재건축위원회 회의
- ▶ 2월 7일 제2차 IFBLS 2022 조직위원회 IFBLS 2022 학술분과 회의
- ▶ 2월 8일 IFBLS 본부-중앙회 zoom call
- ▶ 2월 9일 제470차 상임이사회
- ▶ 2월 9일 제1차 시험위원회
- ▶ 2월 10일 중소병의원 연구과제 논의 간담회
- ▶ 2월 11일 AAMLS BOD 회의 재건축 실무자 회의
- ▶ 2월 12일 172차 정기이사회 회의
- ▶ 2월 14일 제2차 임평원 사무국 회의
- ▶ 2월 15일 협회관 방역 실시
- ▶ 2월 17일 IFBLS 등록홈페이지 관련 회의
- ▶ 2월 18일 회장단, 총회의장단 간담회
- ▶ 2월 21일 협회장, 분과학회장 간담회
- ▶ 2월 24일 협회관 방역 실시
- ▶ 2월 26일 제60차 정기대의원총회 실시
- ▶ 2월 28일 협회관 방역 실시

장인호 협회장 활동보고서

2022.02.01 ~ 02.28

- ▶ 2월 3일 대한임상검사정도관리협회 축사 촬영
- ▶ 2월 4일 시도회장 간담회
- ▶ 2월 5일 결핵 및 호흡기학회 축사 IFBLS 조직위원회 회의
- ▶ 2월 7일 IFBLS 본부-중앙회 zoom call
- ▶ 2월 8일 제470차 상임이사회
- ▶ 2월 10일 의료기사단체 총연합회 1차 정기회의 및 이재명 후보 정책 협약식
- ▶ 2월 11일 AAMLS BOD 회의
- ▶ 2월 12일 172차 정기이사회 회의 이승로 성북구청장 출판기념회
- ▶ 2월 15일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간담회
- ▶ 2월 17일 대한임상검사 정도관리협회 이사회
- ▶ 2월 18일 회장단, 총회의장단 간담회
- ▶ 2월 21일 협회장, 분과학회장 간담회
- ▶ 2월 22일 윤석열 후보 정책협약식
- ▶ 2월 23일 대만학술대회 축사 촬영 국시원 2월 정기이사회
- ▶ 2월 24일 대한임상검사 정도관리협회 대의원 총회
- ▶ 2월 26일 제 60차 정기대의원총회
- ▶ 2월 28일 임평원 보건의료인력 수급조사 설명회

중앙회소식

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장, 성북구의회와 코로나19 대응 간담회

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장과 임원진들은 2월 3일 김일영 서울 성북구의회 의장과 오미크론과 코로나19 대응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 고려대학교 의과대 이민우 연구교수는 코로나19 진단검사체계를 현재 체계에서 고위험군 중심으로 전환과 신속항원 검사에 대해서 설명했으며 협회관 재건축과 관련한 민원 해결을 요청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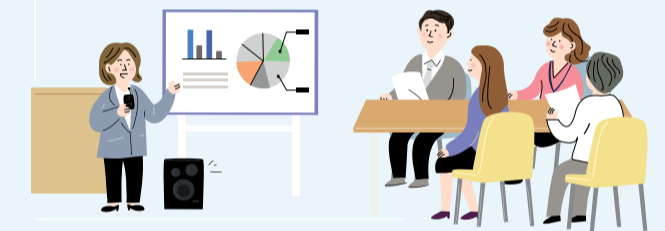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폐기능검사 연수 성료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이사장 심재정은)는 2월 5일 오후 1시부터 역삼동 과학기술회관 내 SC 컨벤션센터 아나이스홀(12층)에서 5차 이론 및 실기 교육을 실시했다.

이론 강의에선 △호흡생리의 이해(건국대 내과 김유림) △폐활량 검사와 검사지표의 이해(계명대 내과 김현정) △기도유발 검사와 운동유발 검사(제주대 이재천) △피부단자시험과 FeNo의 이해(성균관대 내과 신선혜) 등의 교육이 진행됐다.

이어 △장비 정도관리와 오작동 점검과 대처(이대목동병원 김경환) △폐활량 검사와 기관지 가역성 검사(가톨릭대 은평성모병원 김진희) △폐활량검사의 해석(서울대병원 이계순) 등에 대한 실습 교육 시간을 가졌다.

이날 폐기능검사 연수에서 장인호 협회장은 축사에서 "COVID-19와 더불어 폐기능검사가 더욱 주목을 받는 상황에서 연수 교육이 횡수를 거듭해가며 임상 의학 발달과 국민건강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의미를 강조했다.



캠트특공대 유튜브 채널 오픈 예정



대한임상병리사협회는 상반기 '캠트특공대' 유튜브를 개설할 예정이다. 캠트특공대 채널에서는 대중들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병리사들에 대한 홍보와 협회에서 알려주는 임상병리사 회원들이 알아야 하는 정보들을 공유 할 예정이다.



침묵의 장기, 간 M2BPGi 혈액 검사로 간섬유화 조기진단

- ▶ 간섬유화 단독혈액마커
- ▶ 보험 등재 Insurance code: D1980
- ▶ 건강인, 위험인자 대상 조기진단 M2BPGi ≥ 1.0
- ▶ 비알콜성 지방간 진료 가이드라인 등재 간섬유화 혈청검사



Superior single biomarker Reflecting fibrosis in all liver disease

울산광역시 임상병리사회

울산광역시 임상병리사회, 동구종합사회복지관 이웃사랑 후원물품 백미 기부

울산광역시 임상병리사회(회장 이도왕)는 정기대의원총회때 유관기관으로부터 화환을 대신하여 받은 쌀 10kg, 10포를 1월 27일 울산동구종합사회복지관에 후원했다.

이도왕 회장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임상병리사가 검체를 채취하고 검사를 수행하고 있는 국가보건의킴이로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을 위해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이웃사랑 실천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정석 관장은 "따뜻한 나눔의 손길을 베풀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경상남도 임상병리사회

경상남도 임상병리사회 제60차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지난 1월 22일 오후 3시 마산대학교 50주년 기념관에서 경상남도 임상병리사회(회장 제갈석)가 제60차 정기대의원 총회를 열었다. 이 날 총회에서는 포상자 시상 및 2021년 경과보고, 감사보고 그리고 회칙개정안에 이어 2022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심의, 확정했다. 경남도회 도회장은 박선정 총무이사가 수상했으며 우수회원상으로는 양영철 이사(중소병원), 최유리 회원(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 김가영 회원(창원파티마병원)이 받았다. 경남도지사 표창은 박미숙 교수(김해대학교 임상병리학과), 구본석 회원(김해복음병원), 박민 교수(마산대학교 임상병리학과) 임향아 회원(건강관리협회)가 수상했다.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국민건강 수호를 위해 헌신한 임상병리사들을 위해 신설된 국회의원 포상은 총 21명이 수상했다. 경남도회는 2022년 주요 사업계획으로 △채혈사 실무교육 △심초음파 및 경동맥 실무교육 △국가건강검진 실무교육 △청각,시력,폐기능 검사 실무교육 등 취업을 준비하는 졸업생을 위한 사업들을 정했다.



대한임상수혈검사학회

대한임상수혈검사학회 최우수분과학회 표창

대한임상수혈검사학회(학회장 이은경)는 지난 2월 26일 토요일 2022년도 제60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학회의 우수한 학술활동을 인정받아 최우수분과학회 표창을 수상했다. 또한 학회 감사위원인 강복만 감사(서울시회장), 평의원 김한규(인천시회장) 이상 2명은 학술활동 공로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각각 수여 받았다. 임상수혈검사학회 이은경 학회장은 수상을 통해 2021년 어려운 의료환경에서 우리회원들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노력과 온라인 학술대회를 통한 정보교류로 학회 발전에 큰 밑거름이 되었다고 평가하며 2022년 한 해도 회원의 권익보호와 학술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메시지를 전달했다.



대한임상미생물검사학회

대한임상미생물검사학회 비대면 온라인회의 개최 및 한일교류를 위한 비대면 온라인회의 진행

대한임상미생물검사학회(학회장 황유연)는 2022년 임인년을 맞이하여 제1회 비대면 온라인 회의를 진행 했다. 코로나가 종식될 가능성이 높은 2022년을 기대하며 각 위원회별로 리오프닝을 염두에 둔 사업계획을 발표하는 자리를 가졌다. 회의에서는 2021년 코로나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미생물전문임상병리사교육과 학술대회를 온라인으로 진행했으며 소식지사업을 통해 회원들에게 많은 학술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경험을 바탕으로 올해에는 회원들께서 더 쉽고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계획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나눴다. 또한 협



회의의 성공적인 IFBLS 개최를 위하여 분과학회에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한편 국제위원회에서는 한일 교류회의가 비대면 온라인 회의로 진행됐다. 교류회의에는 일본임상미생물학회 이사인 타카하시 교수(기타사토 대학교)와 나가사와(오타와라시 대학교), 그리고 국제위원인 시즈노 (치바시립병원) 등이 참여하였다. 회의에서는 한국의 추계학술대회 일정에 대해 공유 의논하였고, 2023년 한일 심포지엄의 주제선정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며 앞으로 한 일간 지속적인 학술 교류에 힘을 쓸 것을 재차 다짐했다.

www.choongil.com

큰 결실이 되어...

좋은 밤의 씨앗은 몇십 배의 결실로 열매를 맺습니다. 고객의 사랑과 관심의 토양 위에서 성장해 온 충일화학은 '감사의 마음'을 실어 더욱 풍성한 결실로 고객의 든든한 힘이 되었습니다.

CHEMISTRY Dx-C 8801, Dx-C 800, AU Series
 IMMUNOASSAY DxI 800
 HEMATOLOGY DxH 800 / LH1500 Workcell System / LH 780 / LH 750
 SERUM PROTEIN IMAGE 800
 HEMOSTASIS ACL TOP / TOP 500 CTS, ACL ELITE PRO, ACL Family
 LAB Automation System
 Open Clinical Chemistry Reagent
 IMMUNOLOGY ELISA Reagent
 MAST ALLERGY
 BD Tube & Syringe, BACTEC FX, MGIT 960/320
 GYNETICS Follicle Aspiration Needles
 Molecular Diagnostics



본사 : 서울시 성동구 도선동 330번지
 T. 02-2294-6411 / 080-021-7171 F. 02-2293-6556

Lipoprint® System

콜레스테롤 관리의 해결책
 Lipoprint® LDL Subfraction 검사

Lipoprint®는 지단백질의 모든 하위 분획을 측정할 수 있는 유일한 검사입니다.

[결과 항목]

- VLDL
- IDL 1~3
- Large LDL : LDL 1, 2
- Small dense LDL : LDL 3~7
- LDL Particle Size
- Total LDL Cholesterol
- Total Cholesterol

콜레스테롤 검사에서 LDL Subfraction을 확인하지 않으면, 빙산의 일각을 보는 것에 불과합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11길 11, 현대저식산업센터 A동 3층
 Tel. 02-477-5916 Fax. 02-477-5917

BREAKING NEWS

IFBLS 2022 등록 및 초록 제출 오픈!

제35회 세계임상병리사연맹 총회 및 제60회 대한임상병리사학술대회 (IFBLS 2022)의 등록 및 초록 접수가 시작 되었습니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 회원들은 협회홈페이지를 통해 등록과 초록을 제출 할 수 있습니다. IFBLS 2022는 10월 5-9일 수원에서 개최되는 국제 학술대회로 34개국 10,000여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과 포스터 발표가 예정 되어 있으니,아래의 등록 및 초록 안내와 방법을 확인 하시어 전세계 임상병리사들과 함께 폭넓은 탐구와 열띤 논의를 펼칠 수 있는 지식 공유의 장에 참여하세요!

등록소개

IFBLS 2022의 얼리버드 등록이 3월 2일부터 7월 30일까지 진행됩니다. IFBLS 2022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구분	기간
얼리버드 등록 추가등록은 추후공지	3월 2일 ~ 7월 30일까지
초록 등록	3월 2일 ~ 6월 30일

초록소개

IFBLS 2022 홈페이지에서 더 자세한 초록 주제 및 소주제와 제출 가이드라인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Abstract Type	Poster Presentation	Oral Presentation
Abstract Topic		Biochemistry
		Hematology
		Transfusion Science
		Immunology
		Microbiology
		Molecular Diagnostic Science
		Cytology
		Histology
		Physiological Science
		Nuclear Medical Science
		Public Health
		Laboratory Informatics
		Others
		Student Forum

등록·초록 제출 방법 안내



유럽수면기사(ESRS) 도전기 · 수험가이드 김정태(삼성서울병원)



미국 수면기사자격인 Registered Sleep Technologist, RST(ABSM); Registered Polysomnographic Technologist, RPSGT(BRPT); Certified Polysomnographic Technician, CPSGT(BRPT)에 비해 유럽수면기사(ESRS) 자격이 많이 알려지지 않아 국내 수면의학에 근무하고 있는 선후배 및 동료 임상병리사 선생님들을 위해 소개하고자 한다. 임상병리사의 분야가 전문화, 세분화 되어있기 때문에 해외 전문자격이 있다면 직무 역량 및 스펙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세계3대 수면학회(미국,AASM, 유럽,ESRS, 세계수면학회,WASM)중 하나인 유럽수면학회(ESRS)는 유럽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수면의학 전문가들을 인증하기 위해 2012년부터 수면의학 전문가 자격시험을 시행하고 있으며 Somnologists (의사직종)와 Technologists (수면기사 및 수면 관련자직종) 두 개의 종류로 나뉘져 있다. 유럽수면학회인 ESRS는 시행한 2012년부터 2019년 까지는 유럽지역에서 오프라인으로 치러졌기 때문에 국내 임상병리사가 시험에 응시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웠지만 2020년부터 COVID-19의 여파로 인해 오프라인, 온라인 시험을 동시에 진행하기 시작하면서 국내에서도 시험응시 및 자격취득이 굉장히 용이해졌다. 시험일정은 일반적으로 전년도 12월부터 1월 말까지 ESRS 자격시험 공식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해야하고 1년에 1회 시험을 치를 수 있다.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먼저 유럽수면학회에 가입비를 지불하고 정회원으로 가입해야하며 시험 응시자격으로는 '간호사, 심리사 및 수면기사 등으로 RPSGT 자격을 취득한자 또는 그에 상응하는 자격을 갖추 자' 라고 되어있다. 만약 RPSGT 자격을 취득하지 않았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서류가 필요한데, 미국심장학회(American Heart Association, AHA) 인증 BLS-Provider(심폐소생술 자격증)과 수면다원검사를 최소 1,683시간 이상 근무했다는 확인서 및 근무하고 있는 병원 담당 책임자(의사)의 추천서가 필요하다.

온라인 시험 응시 비용을 납부하고,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나면 약 1~2달 뒤 ESRS 자격시험 심의위원회가 열리고,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시험 자격을 부여한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할 경우 이메일을 통해 추가적인 서류 제출을 요구하게 된다. 시험자격을 획득하면, 유럽수면학회 담당자로부터 모든 시험과정을 포함하여 이메일을 통해 진행사항을 알려주게 된다. 온라인 시험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노트북, 데스크탑, 모바일기기로 시험을 볼 수 있으며, 시험 시작 1~2달전 담당자로부터 수험 ID와 비밀번호를 부여받게 된다. 이후 온라인 시험을 위한 환경을 체크 하기 위해 자체 온라인 사이트 주소를 제공받게 되고 해당 개인 기기의 인터넷 연결상황 및 카메라 작동 유무를 통해 적합한 기기인지 확인받는 작업에 들어간다. 모든 사전 준비가 끝나면 당일 정해진 시간에 사이트에 접속하여 시험을 치르면 되는데 시험 시작시간은 중부유럽표준 시간 기준 오전 11시(한국기준 새벽3시)에 시험을 시작하게 된다.

시험은 이론 파트와 임상 파트로 구성되며, 총 시험 시간은 이론 120분, 임상 90분으로 210분이다. 이론 파트 합격 점수는 60%, 임상분야 60% 이상의 점수를 통과해야 한다. 자격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이론과 임상 두 개 파트를 모두 통과해야 한다.

ESRS 자격시험 접수는 전년도 12월에서 당해 연도 1월까지 접수받으며 2022년 온라인 시험 일정은 2022년 10월 1일로 확정됐다.



감염병 진단키트 전문기업

주 | 코젠바이오텍

K-방역, K-바이오 그 시작점에 항상 코젠바이오텍이 있습니다.

코로나19 변이 진단키트

- ✓ WHO·CDC 지정 우려·관심 변이 스크리닝
- ✓ 알파, 베타, 감마, 델타 등 식별 가능

식품의약품안전처 GMP ·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 및 품목허가 · ISO13485 · CE IVD

☎코젠바이오텍
08507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 1로 168 C동 1110호(우림리온스밸리 1차)
전화 : 02-2026-2150 | 팩스 : 02-2026-2155

kogene@kogene.co.kr | www.kogene.co.kr

특별기획연재 ⑦

임상병리사 관련 직급체계

직급체계

공무원 급수와 공공기관의 급수는 '체계'가 다르다. 대략적으로 기관별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보기 어려우나, 공무원 급수와의 공공기관 급수의 비교는 '공무원 급수는 공공기관 급수에서 2,3급정도 낮게 표기 된다. 예를 들어, 간호직 공무원 8급이 건강보험관리공단 6급급, 건강보험심사평가원 5급 정도 라는 것이 누구의 부하라고는 할 수도 없고, 공무원 급수와 공공기관의 급수가 체계가 다르다는 것의 근거만 된다.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성별·연령·직급에 관계없이 같은 노동을 하면 같은 임금을 받아야 한다는 동일가치의 원칙이 있다. '스펙'은 직장을 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학력·학점·외국어점수 등을 합한 것으로 서류상의 기록 중 업적에 해당하는 용어이다.

전문대학 졸업자의 경우 학위수료 프로그램으로 일반대학 편입학, 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이나 사이버대학) 편입학, 학사 전공심화과정, 독학사 학점은행 등이 있다.

공무원 및 사기업 직급 비교

출처 : 공무원/제급

1) 공단, 공사, 사립대학병원, 대기업

사청 공무원	공단, 공사, 사립대학병원, 대기업		
1급(관리관(실/본부장))			
2급(이사관(국장))			
3급(부이사관(국장))			
4급(서기관(과장))	2급 부장	1급급 부장	1급 부장(수석/팀장)
5급(사무관(팀/계장))	3급 차장	1급을 차장	2급 차장(수석/팀장)
6급(주사(팀/계장))	주무관 4급 과장 5급 대리	2급을 과장	3급 과장(책임)(파트장/유닛장)
7급(주사보)		3급급 대리	4급 대리(선임)(파트장/유닛장)
8급(서기)	주무관 6급급 주임 6급을 고졸	3급을 대졸	5급 대졸(사원)
9급(서기보)		4급 전문대졸 5급 고졸	6급 전대졸(사원) 7급 고졸(사원)

※ 구시대적 용어인 기사장은 팀장급, 수석/주임기사는 파트장급에 해당함.

※ 상기 표는 기관별 직급체계가 다양하므로 단순한 예시임.

2) 고시, 교육, 의료, 약무, 간호

사청 공무원	고시	교육	의무	약무	간호
1급(관리관(실/본부장))					
2급(이사관(국장))					
3급(부이사관(국장))	(판사)	교수			
4급(서기관(과장))	(검사)	부교수, 교장	의사 + 경력 6년		
5급(사무관(팀/계장))	(의사)	조교수, 교감	의사 + 경력 2년		
6급(주사(팀/계장))	주무관 (변호사) (회계사)	전임강사, 교사	X		
7급(주사보)			X	약사	
8급(서기)		X	X	X	간호사
9급(서기보)		X	X	X	X

구본경 임상혈액검사학회장 (삼성서울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간호직

- 간호원(1949~1987년 9급)을 간호사(1988~현재 8급)로 개명되면서 상황됨.
- 간호사의 경우 1991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간호학과 편입학(전문대학 출신 간호사만 해당), 2008년 전문대학 간호학과 등의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2011년 3~4년제 간호교육 학제를 4년제로 일원화, 2022년 모든 대학이 전환 완료했음.

3) 보건직, 의료기술직, 검시조사관, 보건연구사, 역학조사관

사청 공무원	의료기술직	검시조사관	보건연구사	역학조사관
1급(관리관(실/본부장))				
2급(이사관(국장))				
3급(부이사관(국장))				
4급(서기관(과장))				가급(의사 + 경력 4)
5급(사무관(팀/계장))				나급(관련분야 박사 또는 석사 + 경력 2)
6급(주사(팀/계장))	주무관		경사 (석사+경력 2)	다급(관련분야 석사 또는 학사 + 경력 2)
7급(주사보)				
8급(서기)		X	X	X
9급(서기보)		순경	X	X

공무원 임용령

- 1992년 의료기술직은 보건직에서 분리된 직렬임

9급 보건직

- 분야 : 응시제한 없음, 자격증(임상병리사 등) 보유 5% 가산 적용
- 9급 보건직이 9급 의료기술직보다 승진에서 더 유리하다고 함

9급 의료기술직

- 분야 :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기공사, 치위생사, 보건 의료정보관리사, 임상심리사

9급 검시조사관

- 관련분야 : 간호학, 임상병리학, 생물학, 생화학, 수의학, 유전공학, 생명공학, 화학 등 8개 분야
- 우대분야 : 해부학교실, 병리실, 수술실, 응급실, 외과 등 5개 분야 경력자(1년 이상)

6~7급상당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연구사 (공중보건 직류)

- 연구사 채용 공고 :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 등 임상병리학(임상검사과학)은 여러 가지 기초과학과 기초의학을 사용해서 임상검사에 응용하는 의생명과학이므로 (응시자격요건의 석사학위 분야)에 임상병리학 (임상검사과학)이 명시될 수 있도록 하는 대관 정책이 필요함.

지역/응시원서접수 필기시험일	지역응시 (거주지 제한 여부)	응시자격 및 학력요건	시험과목
서울시 접수: 8.3~8.6 필기 시험: 10.16 (사전공고)	거주지제한 없음 약학 1 공중보건 4	[약학] 보건학, 약학, 한약학, 생물학, 미생물학 또는 화학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또는 약사, 한의사, 한약사 면허증소지자	필수(2): 약학개론, 약제학 선택(1): 약전학, 약품분석학
		[공중보건] 보건학, 의학, 한의학, 치의학, 약학, 한약학, 간호학, 화학, 생물학, 식물학, 식품가공학, 수의학, 축산학, 낙농학, 동물학, 위생공학, 유전공학 또는 생명정보학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필수(2): 보건학, 역학 선택(1): 미생물학, 식품화학
인천시 접수: 3.29~4.2 필기: 6.5	거주지 제한 없음 공중보건 5 (인천시)	보건학, 의학, 한의학, 치의학, 약학, 한약학, 간호학, 화학, 생물학, 식물학, 식품가공학, 수의학, 축산학, 낙농학, 동물학, 위생공학, 유전공학 또는 생명정보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필수(2): 보건학, 역학 선택(1): 미생물학
부산시 접수: 7.5~7.9 필기: 10.16	거주지 제한 있음 공중보건 10	보건학, 의학, 한의학, 치의학, 약학, 한약학, 간호학, 화학, 생물학, 식물학, 식품가공학, 수의학, 축산학, 낙농학, 동물학, 위생공학, 유전공학 또는 생명정보학을 전공하고, 해당 학 석사학위 이상 취득한 사람	필수(2): 보건학, 역학 선택(1): 환경보건학, 식품화학 (2022년부터 식품화학)
대구시 접수: 3.8~3.12 필기: 4.10	거주지 제한 있음 공중보건 6	보건학, 의학, 한의학, 치의학, 약학, 한약학, 간호학, 화학, 생물학, 식물학, 식품가공학, 수의학, 축산학, 낙농학, 동물학, 위생공학, 유전공학 또는 생명정보학을 전공하고, 해당 학 석사학위 이상 취득한 사람	필수(2): 보건학, 역학 선택(1): 환경보건학
광주시 접수: 3.29~4.2 필기: 6.5	거주지 제한 있음 공중보건 7	보건학, 의학, 한의학, 치의학, 약학, 한약학, 간호학, 화학, 생물학, 식물학, 식품가공학, 수의학, 축산학, 낙농학, 동물학, 위생공학, 유전공학 또는 생명정보학을 전공한 사람	필수(2): 보건학, 역학 선택(1): 미생물학
울산시 접수: 3.8~3.12 필기: 4.24	거주지 제한 있음 공중보건 5	보건학, 의학, 한의학, 치의학, 약학, 한약학, 간호학, 화학, 생물학, 식물학, 식품가공학, 수의학, 축산학, 낙농학, 동물학, 위생공학, 유전공학 또는 생명정보학을 전공한 사람	필수(2): 보건학, 역학 선택(1): 식품화학
대전시 접수: 7.5~7.9 필기: 10.16	거주지 제한 있음 공중보건 2) 4로 변경	보건학, 의학, 한의학, 치의학, 약학, 한약학, 간호학, 화학, 생물학, 식물학, 식품가공학, 수의학, 축산학, 낙농학, 동물학, 위생공학, 유전공학 또는 생명정보학을 전공하고 관련학과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필수(2): 보건학, 역학 선택(1): 환경보건학, 식품화학
세종시 접수: 2.8~2.10 필기: 10.16	거주지 제한 있음 공중보건 3	보건학, 의학, 한의학, 치의학, 약학, 한약학, 간호학, 화학, 생물학, 식물학, 식품가공학, 수의학, 축산학, 낙농학, 동물학, 위생공학, 유전공학 또는 생명정보학을 전공한 사람 (2022년 이후 관련학과 석사이상 취득한 사람)	필수(2): 보건학, 역학 선택(1): 식품화학
경기도 접수: 1.26~1.28 필기: 2.27	거주지 제한 있음 약학 5	보건학, 의학, 한의학, 치의학, 수의학, 미생물학(생물학, 유전공학 또는 생명정보학), 생리학 또는 생화학을 전공하고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으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필수(2): 보건학개론, 예방의학 선택(1): 역학
강원도 접수: 7.5~7.9 필기: 10.16	거주지 제한 있음 공중보건 1	보건학, 의학, 한의학, 치의학, 약학, 한약학, 간호학, 화학, 생물학, 식물학, 식품가공학, 수의학, 축산학, 낙농학, 위생공학, 유전공학 또는 생명정보학을 전공하고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필수(2): 보건학, 역학 선택(1): 미생물학
		[의학] 보건학, 의학, 한의학, 치의학, 수의학, 미생물학, 생리학, 또는 생화학 석사학위 이상 취득한 사람	필수(3): 보건학개론, 예방의학, 미생물학
경남 접수: 7.5~7.9 필기: 10.16	거주지 제한 있음 약학 6(경남도) 공중보건 9(도8,창원1)	[공중보건] 보건학, 의학, 한의학, 치의학, 약학, 한약학, 간호학, 화학, 생물학, 식물학, 식품가공학, 수의학, 축산학, 낙농학, 동물학, 위생공학, 유전공학 또는 생명정보학 석사학위 이상 취득한 사람	필수(3): 보건학, 역학, 보건행정학
		[약학] 보건학, 의학, 한의학, 치의학, 수의학, 미생물학, 생리학 생화학 석사학위 이상 취득한 사람	약학 필수(2): 약학개론, 약제학 선택(1): 약물학, 약전학
경북 접수: 3.8~3.12 필기: 4.10	거주지 제한 있음 약학 2 (경북도) 공중보건 5 (경북도)	[공중보건] 보건학, 의학, 한의학, 치의학, 약학, 한약학, 간호학, 화학, 생물학, 식물학, 식품가공학, 수의학, 축산학, 낙농학, 동물학, 위생공학, 유전공학 또는 생명정보학을 전공하고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취득한 자	공중보건 필수(2): 보건학, 역학 선택(1): 환경보건학, 보건행정학
		보건학, 의학, 한의학, 치의학, 약학, 한약학, 간호학, 화학, 생물학, 식물학, 식품가공학, 수의학, 위생공학, 유전공학을 전공하고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22년부터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로 변경)	필수(2): 보건학, 역학 선택(1): 식품화학(22년부터), 보건학, 역학, 미생물학
충남 접수: 3.3~3.5 필기: 4.3 접수: 7.5~7.9 필기: 10.16	거주지 제한 있음 공중보건 10(충남도)	보건학, 의학, 한의학, 치의학, 약학, 한약학, 간호학, 화학, 생물학, 식물학, 식품가공학, 수의학, 위생공학, 유전공학을 전공하고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22년부터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로 변경)	필수(2): 보건학, 역학 선택(1): 식품화학(22년부터), 보건학, 역학, 미생물학
		보건학, 의학, 한의학, 치의학, 약학, 한약학, 간호학, 화학, 생물학, 식물학, 식품가공학, 수의학, 위생공학, 유전공학을 전공한 자	의학 필수(2): 보건학개론, 예방의학 선택(1): 역학
충북 접수: 3.8~3.12 필기: 4.10	거주지 제한 있음 약학 6 (충북도) 공중보건 3 (충북도)	[공중보건] 보건학, 의학, 한의학, 치의학, 약학, 한약학, 간호학, 화학, 생물학, 식물학, 식품가공학, 수의학, 축산학, 낙농학, 동물학, 위생공학, 유전공학 또는 생명정보학을 전공한 자	공중보건 필수(2): 보건학, 역학 선택(1): 환경보건학
		보건학, 의학, 한의학, 치의학, 약학, 한약학, 간호학, 화학, 생물학, 식물학, 식품가공학, 수의학, 위생공학, 유전공학을 전공한 자 (22년부터 석사학위 이상 취득한자로 변경)	필수(2): 보건학, 역학 선택(1): 미생물학, 식품화학
전남 접수: 8.30~9.3 필기: 11.20	거주지 제한 있음 공중보건 6 (전남도)	[의학] 보건학, 의학, 한의학, 치의학, 수의학, 미생물학, 생리학 생화학을 전공한 자	필수(2): 보건학개론, 예방의학 선택(1): 미생물학
		[공중보건] 보건학, 의학, 한의학, 치의학, 약학, 한약학, 간호학, 화학, 생물학, 식물학, 식품가공학, 수의학, 축산학, 낙농학, 동물학, 위생공학, 유전공학 또는 생명정보학을 전공한 자(22년부터 석사학위 이상 취득한자로 변경)	필수(2): 보건학, 역학 선택(1): 환경보건학(2022년부터 선택)생화학으로 변경
전북 접수: 3.22~3.26 필기: 5.1	거주지 제한 있음 약학 7 (전북도) 공중보건 7 (전북도)	[의학] 보건학, 의학, 한의학, 치의학, 수의학, 미생물학, 생리학 생화학을 전공한 자	필수(2): 보건학, 역학 선택(1): 환경보건학(2022년부터 선택)생화학으로 변경
		[공중보건] 보건학, 의학, 한의학, 치의학, 약학, 한약학, 간호학, 화학, 생물학, 식물학, 식품가공학, 수의학, 축산학, 낙농학, 동물학, 위생공학, 유전공학 또는 생명정보학을 전공한 자(22년부터 석사학위 이상 취득한자로 변경)	필수(2): 보건학, 역학 선택(1): 식품화학
제주도 접수: 7.5~7.9 필기: 10.16	거주지 제한 있음 공중보건 2 (제주도)	보건학, 의학, 한의학, 치의학, 약학, 한약학, 간호학, 화학, 생물학, 식물학, 식품가공학, 수의학, 축산학, 낙농학, 동물학, 위생공학, 유전공학 또는 생명정보학을 전공한 자(22년부터 석사학위 이상 취득한 자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변경)	필수(2): 보건학, 역학 선택(1): 식품화학

2022년도 조직전문임상병리사 양성교육과정 교육생 모집 안내

대한조직세포검사학회 조직전문임상병리사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조직전문임상병리사 양성교육과정 교육생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교육기간

2022년 4월 2일(토) ~ 5월 21일(토) 매주 토요일 (8주, 48시간 교육)

장 소

온라인 교육 (비대면 ZOOM 강의)

지원자격

- 대한임상병리사협회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한 회원
- 시험응시 당해 연도 1월 1일까지의 병리 근무경력(만 8년 이상인 회원)

접수

- 원서교부 : 대한조직세포검사학회 전문임상병리사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kshc.or.kr>)에서 회원가입 후 조직전문임상병리사 위원회 공지사항에서 지원서 다운로드
- 접수기간 : 2022년 3월 1일(화)부터 2022년 3월 15일(화) 24:00까지

문의사항

조직세포학회 학술간사 김연희 010-5757-5569

[초대석] 김미나 대한임상미생물학회 이사장

“다양한 PCR 키트, 검사역량, 효율적 대상 선정” 알고리즘 수립 전문가 나서야
임상미생물검사실 전문의와 병리사-오케스트라 지휘자와 연주자 관계



“임상미생물학”에 대해 이사장님은 “감염을 진단하는 학문이므로 진단검사의 학의 메인인 되는 세부 전문분야이자 감염학, 미생물학, 기생충학, 병원역학과 감염관리 등 여러 학문 분야 및 병원의 필수 기능을 아우르는 다학제적 성격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고 밝히셨는데 임상미생물학의 연구 분야 및 임상에서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임상미생물학의 연구라면 앞서 인용한 설명처럼 감염학, 미생물학, 기생충학, 병원역학과 감염관리 등 여러 학문 분야의 주류가 되고 있습니다. 임상에서의 역할 또한 세균감염, 기생충감염, 진균감염, 바이러스감염 등의 확진 및 치료제 선정, 결핵감염자나 면역저하자의 잠복감염의 활성화 모니터링, 의료관련감염 감시 및 관리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인류의 건강을 위협하는 ‘미생물과 감염병에 대한 학술 연구 및 국가 감염병 위기 대응’ 등을 통해 국민보건향상 및 건강수호에 기여하는 대한임상미생물학회 및 회원들의 끊임없는 노력에 대해 설명해 주신다면?

-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 학회 회원들의 역할과 수고는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저 자신이 2년 간 밤낮없이 검사실을 지키며 제 역할을 하고자 했습니다. 우리의 진단 역량이 세계 최고라고 자부했고, 메르스 이후 방역위기를 대비한 감염병진단체계를 선진적으로 구축하였기에 우리나라 국민을 지키는데 임상미생물학이 최고의 방패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담당하는 임상병리사를 또한 같은 마음으로 혼신의 힘을 다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우리 학회원과 임상미생물검사 담당 임상병리사 여러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학회 회원들의 활발한 교류를 바탕으로 임상미생물(학) 분야와 관련된 민간 기관, 기업들(예 진단키트 진단장비 등)과의 협업, 진단검사의학회, 진단검사의학재단, 대한임상검사정도관리협회, 대한진단유전자학회, 한국검체검사전문수탁기관협회 등 연관 학회 및 외국 학회 등과 상생발전해 나가기 위한 구체적인 활동 및 전략(방안)을 설명해주셨으면 합니다.

- 구체적인 활동이나 전략이라고 할 것이 없습니다. 학회 분연에 목적에 맞게 임상미생물에 연관된 모든 학 협회, 기관, 진단시약 회사들과 소통과 교류를 늘리고, 각 구성원들 모두 신명나게 참여할 수 있는 학술활동의 장을 만드는 것이 상생발전 위한 비전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 증가가 위중증 환자 수 증가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양성률(검사자 중 감염자)이 51% 까지(3.3일 기준) 치솟는 상황인데 진단검사 등에 대한 시급한 정책 개선, 보완 사항은?

- 이 인터뷰 문항을 받아든 이후 상황이 더 악화되어 이제 진단검사 체계는 코로나19 방역의 인프라가 아니라 들러리가 되었습니다. PCR을 받아 진단한 확진자수는 이제 실제 감염자의 일부만을 보여줄 뿐입니다. 확진자수가 아니라 입원이 필요한 위중증자와 사망자를 줄이는데 집중하겠다고 하지만, 조기진단을 해야 적시치료를 한다는 기본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진단이 늦어져서 경구약 투여시기를 놓치는 상황도 초래됩니다. 그래서 신속항원검사 양성이면 확인없이 경구약 치료를 해

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옵니다. 진단에 지름길은 없습니다. 현재 2단계 진단검사는 PCR 기반 1단계 진단검사체제로 복귀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안입니다. 다양한 PCR 진단키트와 장비를 확보하여 검사역량을 확충하고, 효율적으로 검사대상자를 선정하는 알고리즘을 만드는 일은 진단의 전문가가 나서야 할 일입니다.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키트의 문제점(정확성 및 실용성 측면 등)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 코로나19 로 인한 국가 방역 역사상 최악의 위기상황을 ‘자가검사키트’ 기반으로 해결하겠다고 하는 것은 진단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법정 3급 감염병은 진단키트 인허가가 매우 까다롭고 진단 시 보건당국에 신고를 해야 하는 질병임에도 자가검사를 허용한 것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예외적인 상황입니다. 여기에 자가검사키트의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어떤 감시 장치도 없었을 뿐 아니라 민감도가 떨어진다는 과학적인 근거를 무시하고 신속항원검사 양성인 나와야 PCR 진단검사를 해주는 방역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구멍이 송송 뚫린 영성한 그물을 던져 잡은 물고기들을 총총한 그물로 다시 한 번 거르는 격입니다. 첫 그물에서 이미 빠져나가 버린 대부분의 물고기들은 물고기로 안 보겠다는 것인데 그 효과는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는 확진자수와 검사양성률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포스트코로나 때 이미 풀린 자가검사키트들이 어떤 부작용을 초래하게 될지 지금부터 우려가 됩니다.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들은 확진자 증가에 대비해 자동화 검사 장비를 대폭 늘려 대응 역량을 강화해나갔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자동화 시스템 도입이 한 발 늦어 자동화 장비 도입 확대를 통한 검사역량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 오미크론 대유행이 본격화 되면서 그동안 우리나라가 자신하던 진단검사 체계의 한계를 극명하게 깨닫고 있습니다. 여유가 있을 때 만반의 준비를 해야 어려움이 닥칠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 코로나19 진단검사 체계는 초반의 성공에 안주했고, 그 다음 단계를 준비하려면 그 체계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사실을 외면했습니다. 팬데믹 장기화와 우세한 변이주의 교대는 신종플루나 메르스 때와는 달리 진단검사도 계속해서 업그레이드해야 한다는 중요한 교훈을 남겨 주었습니다. 대한임상미생물학회는 작년 2월 심포지엄부터 자동화 장비, 타액검체 도입, 신속 진단검사 키트에 대한 문호 개방 등 진단검사 체계의 모든 요소들을 다양하게 확보할수록 팬데믹과의 전투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왔습니다. 지금에 와서 보면 우리나라의 코로나19 진단검사 수준은 너무도 뒤쳐졌습니다. 역사는 신우기를 선정한 쪽이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시시각각 바뀌는 역학에 따라 적재적소에 사용할 다양한 무기를 확보하는 것은 팬데믹을 종식시키고 위드코로나로 가기 위해 지금이라도 서둘러야 할 일입니다.

감염관리 의사, 임상병리사, 간호사 등을 대상으로 “진단검사의학 분야에서 ‘감염관리’를 주제로 한 연수강좌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계신데 임상병리사들과의 협력 증진 방향에 대해 말씀해주신다면?

- 서양의학이 이 땅에 처음 들어와 만든 진단검사실이 감염을 진단하기 위한 오늘날의 임상미생물검사실이라는 것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임상미생물검사의 유구한

전통에 비해 감염관리는 비교적 새로운 학문 분야입니다. 임상미생물검사를 담당하는 전문의와 병리사가 필연적으로 미래에 더 많은 활약을 해야 하는 분야이기에 9년 전 이 연수강좌를 만들었고, 감염관리에 헌신하는 의사 뿐 아니라 임상병리사를 위한 국내 최초의 연수강좌였습니다. 이 연수강좌가 감염관리 전문인력의 연수교육에 대한 법적인 요건이 탄생할 때 국내 표준이 되었음에 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최근 국내 감염관리는 질적 양적으로 의료의 어느 분야보다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남보다 한 발 앞서 출발했다고 자만하지 않고 내용과 수준으로 인정받는 국내 최고의 감염관리 연수강좌의 전통을 유지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대한임상미생물검사학회는 창립 이래 33년째 꾸준한 학술활동 및 전문지식 교류의 장을 통해 500명에 가까운 미생물전문임상병리사를 배출해 최신 검사법의 지속적인 공유 등을 통한 진단검사 업무 질 향상을 도모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위 학회 활동 등에 대해 격려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 대한임상미생물검사학회는 이름에서 보듯이 대한임상미생물학회와 오랜 세월을 같은 길을 동행하고 있는 ‘간부’가 아닌가 합니다. 임상미생물검사실의 전문의와 병리사는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와 연주자처럼 각자의 실력을 연마하여 제 역할을 다할 때 서로를 빛나게 해주는 존재입니다. 두 학회의 학술활동이 임상미생물검사실에서 진단검사 업무의 질을 향상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에도 앞으로도 함께 발전하기 위해 대한임상미생물검사학회의 건승을 기원하고 돕겠습니다.

사안별 의료기사법 등 개정안 취지

남인순 의원,임상병리사 등 의료기사 교육과정 평가인증 의무화 추진

보건의료정보관리사에 이어 의료기사에 대한 교육과정 평가인증을 의무화해,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인정기관 인증을 받은 대학 등을 졸업한 경우에 부여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 추진된다.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한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의료정보관리사는 인정기관의 교육과정 인증을 받은 대학 등을 졸업한 경우 국가시험 응시자격이 부여되나, 의료기사의 경우 해당 대학 등에 대한 인정기관의 인증을 필요로 하지 않고 있다.”면서 “의료기사는 환자의 생명 안전과 밀접한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우수 인력 배출을 위해 의료기사의 국가시험 응시자격도 인증을 받은 대학 등을 졸업한 경우에 부여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고 밝혔다. 이어 “보건의료정보관리사와 마찬가지로 의료기사 국가시험의 응시 자격에 대해서도 인정기관 인증을 받은 대학 등을 졸업한 경우에 부여하도록 함으로써 우수한 의료기사 양성에 기여하고자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김상희 의원, 의료기사에 ‘진료·검사 기록’ 작성 의무 부여 추진

의료기사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를 시행할 경우 이에 대한 기록을 별도로 남기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의료기사가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관한 기록을 작성·보존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 등에 대한 제재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김 의원은 “의료기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환자의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면서 “현행법은 의료기사에 대해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기록의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환자에 대한 계속적인 진료·검사에 참고할 자료가 없다.”고 지적하며 “의료기사가 환자에게 행한 진료·검사 내용의 작성 및 보존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제재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영석 의원, 현장실습 이수 의료기사 면허 응시 필수

현장실습과목 이수를 의료기사 면허시험 응시 필수요건으로 명시하는 법안이 2월 8일 제출됐다. 의료기사 면허 중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을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현장실습과목을 이수하여 졸업한 사람’으로 개정함으로써 높은 의료기사 배출과 함께 보건의료인으로써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개정안에서 현행 법률에 현장실습 관련 근거기준이 미비해 의료기사 등의 현장실습 운영에 혼란이 있고, 양질의 현장실습을 받지 못한 채 국시에 응시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서삼석 의원 ‘임상병리사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에 병역의무 이행 근거 마련’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농어촌 등 보건疫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은 임상병리사를 비롯 방사선사·물리치료사와 간호사·약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해 섬 지역 보건疫료 취약 지역의 의료서비스 질을 향상토록 했다. 해당 개정안은 임상병리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와 간호사·약사 등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공중보건업무에 복무하는 보충역인 공중보건疫료기사 등으로 편입해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수진 의원 ‘보건疫료인력 적정 보수 수준’ 명시→수급안정·疫료서비스 질 제고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건疫료인력지원법개정안에서 보건疫료인력 종합계획 수립 및 실행조사 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보건疫료인력의 보수 및 적정 보수 수준’을 추가하는 조항을 신설토록 했다. 이 의원은 원활한 보건疫료인력 수급을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보건疫료인력에 대한 적정 수준의 보수를 제공’하는 것으로 적정보수 담보를 통해 보건疫료인력의 수급 안정과 환자에 대한 疫료서비스 질 제고를 꾀하는데 취지가 있다고 밝혔다.

2022년! 감상평 이벤트

여러분의 병리협보 감상평을 보내주세요!

병리협보는 정회원 분들을 대상으로 이벤트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호 병리협보에서 가장 인상 깊게 읽었던 부분의 감상평을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총 2분을 추천해 소정의 기념품(4만원 상당)을 드립니다.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은 다음 병리협보에 게재됩니다.

- 1) 접수기한 : 2022년 3월 22일(화) 18:00까지 전송
- 2) 접수방법 : 접수양식에 맞게 작성하여 이메일 (kamtreporter@daum.net)로 발송
- 3) 접수양식 - 이번 호 가장 좋았던 기사
- 해당 기사에 대한 간단한 의견
- 개인정보: 성명, 전화번호, 상품을 받으실 주소

[제469호 당첨자]

이번 호 가장 좋았던 기사

서울시회, '코로나19 숨은 주역 임상병리사' 포스터 게시

● **김정희 55164**: 서울특별시 임상병리사회가 코로나 숨은 주역 임상병리사라는 타이틀로 코로나 파수꾼 임상병리사의 헌신 모습을 포스터에 담아낸 걸 보고 정말 우리 임상병리사가 코로나시대에 보이지 않는 주역 이란걸 마음 깊이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아직 국민들에게 힘든 의사, 간호사만 보이겠지만 정말로 코로나검사 또 여러 가지 국내 외 병원 보건소 열심히 일한 병리사의 노고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포스터라는 생각이 들어 정말 인상 깊고 가슴 찡한 내용이었습니다.

간추린정도관리

사람의 행동은 매우 중요하다.
생각의 질이 일의 질을 결정하며
일의 질은 산출물의 질을 결정한다.

회원동정

- △ 송치웅 대전사회 회장 씨젠의료재단 대전충청센터 검사실장 이직
- △ 인원교 충남도회 부회장(공주의료원) 충남도지사상 수상
- △ 방영애 (당진시보건소) 6급 승진
- △ 정장수 (공주의료원 실장) 공로연수
- 강원대학교 병원
- △ 윤석관 의료관리실장 공로연수 △ 조용희 의료관리실장 승진
- △ 오종원 진단검사의학과팀장 승진

BECKMAN COULTER

밤낮없이 헌신해주시는 의료진에
벅크만쿨터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벅크만쿨터의 최신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Patients are counting on your results

With high performing assays, the Atellica Solution will help you deliver them

HO000516200207894 © Siemens Healthineers Diagnostics Inc., 2019
Atellica is a trademark of Siemens Healthineers Diagnostics Inc. Product availability will vary by country.

Powered by Atellica® Solution

The Atellica Solution offers a broad, growing menu of chemistry and immunoassays—from a true High-Sensitivity Troponin I assay to a robust thyroid menu.

See our comprehensive menu or ask your sales representative for more information.

With revolutionary sample management, the Atellica Solution provides the diagnostics patients need with the turnaround time clinicians require.

재단법인 씨젠의료재단
Seegene Medical Foundation
 글로벌 질병검사 전문의료기관



부산경남검사센터



대구경북검사센터



광주호남검사센터



대전충청검사센터



카자흐스탄알마티 검사센터(SKL)



(재)씨젠의료재단 본원

질병검사 전문의료기관 **(재)씨젠의료재단**은
 최고의 전문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질병 진단과 예방에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재)씨젠의료재단은 질병검사 전문의료기관으로서,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최근까지 코로나19 긴급대응팀을 구성하고,
 국내 최대의 검사 역량을 바탕으로 서울 및 지역 검사센터에서
 신속한 진단 결과를 제공하며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K-방역 최일선, 코로나19 국내 최다 검사



코로나19 검사 시스템 집중 조명



지역사회 검체 역량 강화 기여



씨젠의료재단본원 | 서울특별시 성동구 천호대로 320
 부산경남검사센터 |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97
 대구경북검사센터 |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619
 광주호남검사센터 | 광주광역시 남구 효우로 200
 대전충청검사센터 | 대전광역시 서구 계룡로 398
 카자흐스탄 알마티 검사센터(SKL) | Almaty, Kazakhstan

검사의뢰
 학술문의 **1566-6500**
www.seegenemedical.com